제목을 입력하세요

작성자 노트북
10304 학번

잘 닦여진 유리창을 의심하랴?

청심 국제중학교

1학년 3반 김인화

대부분 정의나 양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울이나 칼을 들고 서있는 여신상이 떠오를 것이다. 여기서 저울은 무엇을 의미할까. 그럼 칼은?

경복궁 광화문 앞에 가보면 두 마리
의 호랑이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
한 해태라는 동물의 상이 세워져 있다.
이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 매우 엄하
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. 광화문
앞에 이것을 세워놓은 이유는 옛날 매
일 아침 관리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
해태를 보면서 국정을 공정하게 하겠다
는 다짐을 하도록 한 것이다. 그래서
그 앞을 지나갈 때는 말에서도 내려걸

20×10

어 갔 다 고 한 다 . 이 말 고 도 옛 사 람 들 이
공 정 함 과 양 심 을 얼 마 나 중 요 하 게 여 겼
는 지 알 수 있 는 사 례 는 적 지 않 다 .
우 리 는 투 명 하 고 맑 은 바 다 를 보 면 저
절 로 감 탄 사 가 나 오 게 된 다 . 왜 그 럴
까 ? 그 저 아 름 다 워 서 ? 아 닐 것 이 다 .
누 구 나 아 름 다 운 것 을 보 면 감 탄 하 기
마 련 이 지 만 다 른 이 유 도 있 다 . 그 맑
음 과 깨 끗 함 을 보 고 공 경 심 이 마 음 으 로
부 터 우 러 나 오 는 것 이 다 . 우 리 와 다 른

20×10

세 상 처 럼 여 겨 지 는 그 맑 은 바 다 가 사
람 들 눈 에 는 공 경 과 희 망 의 대 상 이 되
는 것 이 다 . 우 리 도 각 자 의 마 음 을 잘
들 여 다 보 면 무 엇 이 잘 못 되 었 는 지 하 나 하
나 자 세 히 알 수 있 다 . 우 리 사 회 는
어 떨 까 . 다 시 저 울 과 칼 이 야 기 로 가
기 로 하 자 . 저 울 이 의 미 하 는 것 은 법
의 평 등 함 이 다 . 저 울 은 조 금 만 차 이 가
나 도 기 울 어 버 린 다 . 칼 은 엄 격 함 을 의
미 한 다 . 저 울 의 기 능 을 유 지 하 기 위 해

20×10

있 는 것 이 칼 이 아 닐 까 싶 다 . 그 러 면
우 리 사 회 에 서 칼 의 역 할 을 하 는 것 은
무 엇 일 까 . 징 벌 일 수 도 있 겠 지 만 양 심 이
다 . 양 심 은 우 리 의 사 고 속 에 서 옳 고
그 름 을 가 리 는 기 준 이 되 어 준 다 . 우 리
마 음 에 서 우 러 나 오 는 양 심 보 다 더 좋 은
칼 이 있 을 까 . 그 런 데 요 즈 음 그 것 과 는
반 대 로 일 어 나 는 일 들 이 너 무 많 다 .
언 제 부 터 인 가 유 행 한 ‘ 사 과 상 자 ’ 라 는
말 이 아 직 도 나 돌 고 있 다 . 이 것 은 우

20×10

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
다. 이것이 결코 정당한 행동이 될
수 는 없다. 어떻게 돈이 양심을 지
배할 수 있다는 건가. 그런데 더 큰
문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
식하지 못한다. 미디어에서는 그 문제
가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 인양 여기저
기서 써먹고 있다. 그리고 사람들은
그것이 무슨 사회를 살아가는 진리인
것처럼 여기고 있다. 악순환 이 계속

20×10

되 어 가 고 있 다 . 어 떻 게 하 여 야 할 까 .

지 금 사 회 가 원 하 는 것 은 양 심 적 인

행 동 이 다 . 개 개 인 의 양 심 이 제 대 로 만

기 능 을 한 다 면 문 제 될 것 이 없 다 . 10

명 중 1 명 만 이 양 심 적 이 라 고 해 도 그

1 명 으 로 9 명 을 바 꿀 수 있 는 것 이 다 .

좋 은 영 향 은 나 쁜 영 향 보 다 느 리 게 퍼

져 나 가 기 는 하 지 만 한 번 퍼 지 기 시 작

하 면 끝 이 없 다 . 그 리 고 사 회 에 서 오

랜 시 간 동 안 유 지 가 된 다 . 그 래 서 이

20×10

야 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한명이라도 먼
저 공정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도록 해
야 한다는 것이다. 그리고 다음으로
물질적인 욕망을 버려야한다. 앞에서도
이야기 했듯이 근래 일어나는 사회적인
문제는 대부분 물질적인 것 때문이다.
하루 빨리 우리의 가치를 바로알고 그
가치를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
다. 마지막으로 정의를 위해 그 무엇
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

20×10

한다. 정의 지키는 행동을 하면 자기
자신은 물론 사회와 다른 사란에게도
해가 없다. 그리고 혼자 자책감에 사
로잡힐 필요도 없다. 한마디로 너도
좋고 나도 좋게 되는 것이다.
사람들이 맑고 푸른 망망대해를 감탄
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듯이 숨
긴 것 하나 없는 당당하고 공정한 사
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.
그런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이 사

20×10

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하나이며
잘 닦여진 유리창처럼 사람들의 마음이
다 보여 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
우리이다.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감추
고 살아가는 일이 사회의 진정한 가치
를 감추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다.
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진실
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. 누구보
다 떳떳하게 말이다.

20×10